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on Postpartum Blues

-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

Min Hyang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10 Deogam-gil, Neasu-eup,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maternal attachment on postpartum blues with self-esteem as a mediating variable.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bjects' responses estimated the level of mother-child attachment to be 89.78 ± 13.74 points, postpartum blues to be 48.01 ± 11.85 points, and self-respect to be 30.19 ± 4.71 points.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postpartum blues was found to be -0.325 , indicating a medium-level negative correlation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99% confidence level. Third, the Sobel test reveal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effects of mother-child attachment on Postpartum Blues ($z = -2.478$, $p < .001$). As mothers experiencing postpartum blues tend to have difficulty in forming the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they must be diagnosed and provided with support as early as possible.

Key words: maternal attachment, self-esteem, postpartum blues, deliver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와 태아 관계는 임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실제적인 모아관계 형성은 분만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심리적, 생리적, 내분비적 측면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출산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핵가족화 경향은 친척 등 일차 집단의 도움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지지나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되어 불안과 긴장, 우울감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산후우울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Cho, 2009). 특히 첫 아기의 출생 후 어머니로서 의미 있고 애정적인 접촉을 시작해야 하는 산모는 산육기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Lee, *et. al.*, 2007).

건강한 모아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 모아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모아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하여 모

[†] Corresponding author: Min Hyang Park, Tel. +82-43-210-8292, Fax. +82-43-210-8252, e-mail. jalhanda98@chsu.ac.kr

성애로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Yun, *et. al.*, 2011) 반응을 일으키려는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며 애정을 가진 관계를 통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애착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출산 후 24시간 내에 산모와 아기가 분리되면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고, 아기의 반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함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 산후우울로 까지 발전 될 수 있다(Yun, *et. al.*, 2011).

모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n(2005)은 아기 만출 직후 10분간의 모아 조기접촉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모아애착이 증진된 결과를 보고하였고, Choi(2005)는 모유팩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 어머니보다 모아애착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in(2007)은 켄거루식 돌보기 프로그램을 3주간 10회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모아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산후 정서상태와 모아애착은 서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성의 정신사회적 건강은 물론 아기의 정서적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Beck & Indman, 2005). 특히 산후우울은 산후여성의 정신건강과 모아관계에 개입하여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산후우울이 모아애착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Coyle, 2009), 산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모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모의 산후우울이 육아와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모성역할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ck & Indman, 2005). 산모가 산후우울을 겪는 경우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영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모유수유율도 감

소하며,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영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Bang, 2011). Lee, *et. al.*(2011)은 산후우울성향이 높게 나온 어머니는 영아와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낮았고, 영아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자기를 존중 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산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산후우울을 높인다(Ahn, *et. al.*, 2006).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모아애착 증진과 관련한 간호중재는 다수 있었으나,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및 산후우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모아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중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모아애착

인간의 최초 사회화과정은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립되며, 이를 통해 획득된 모아관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Oh, 1999). 모아애착은 생후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로 영아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애정적 유대이고, 정서적 결속이며, 모성과 아동의 유대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느낌이다(Ainsworth, 1989).

아기로부터 분리, 산후우울, 스트레스 같은 요인은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의 질을 방해한다(Na, 2011). Kwon(1998)은 안정된 모아애착 형성에 어머니 측 영향 요인으로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아기반응에 대한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 어머니역할획득, 모성정체성과 아기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생활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 등을 제시하였고, 영아측 요인으로는 아기의 건강한 신체적 상태, 기질, 수유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모아애착과 관련한

문제는 시기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출생 직후 신생아기는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서, 출생 직후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준다(Han, 2001). 어머니의 산후우울은 모아애착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Cramer, 1993), 산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Lee, 2008).

2. 산후우울

1) 산후우울의 개념

산후우울에 대한 관심은 고대 희랍시대부터 지금까지 임상과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Lee, 1997).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산후에 일어나는 정신장애를 최초로 산후 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이라고 명명 하였다(Sin, 2002). 출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울과 관련된 정서장애는 크게 산후우울감, 산후우울증, 산후정신병으로 구분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산후우울감은 분만 후 수일 이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기분변화로 정의된다. 증상은 일시적이지만 쉽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양상으로, 산후 2주 이내로 제한되며 여성의 85%가 경험한다. 산후우울증은 보다 더 증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 산모의 10-15%가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적절한 감정, 불안, 실망, 에너지 부족, 부부관계 부족, 강박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Lee, 1997).

산후우울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증상들을 수반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기분장애 혹은 정동장애라고 한다. 기분장애란 우울, 희열과 같은 기분, 즉 한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상태의 장애가 결정적인 병리인 장애로서 내적 기분의 지속적인 상태를 기분(mood)이라고 말하며 감정의 외적표현을 정동(affect)이라고 한

다(Kim, *et. al.*, 2005). 또한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몬 상태의 변화나 감염과 같은 분만 전후의 의학적 상태변화 등 생물학적 요인들, 스트레스 사건이나 심리적 갈등 등의 심리 사회학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이처럼 산후우울은 산모가 출산 후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기분장애를 경험하는 것이다.

2) 산후우울의 증상과 원인

산후우울의 증상으로는 경한 또는 중등도의 기분 부전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 산모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쁘면서도 싫어하기도 하는 불일치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 아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부모 노릇을 잘 할 수가 있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위축되고 슬픈 기분, 불쾌감, 기면증, 집중력의 저하, 기억력저하, 식욕부진, 성욕상실, 자주 울고 싶어지며 쉽게 당황하거나 희망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심한 경우 자신이나 아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아기를 해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Blum, 2003). 산후우울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시적인 우울로 임신중 정서가 침체된 기분으로 꿈, 환상, 자살의 욕구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산후 1-3개월까지 지속되며 태어난 아기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어서 수면장애가 일어난다.

3단계는 분만 1년까지 지속되며 부모역할에 적응하려고 하나 막연하고 모호한 감정의 변화, 어머니역할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보인다(Na, 1993). 산후우울의 진행과정은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약 30.6%에서 2년 넘게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행할 수 있다(Horowitz, 2004).

산후우울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신체적 요인은 호르몬적 변화로 인체의 호르몬 중 임신을 유지하던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이 분



Figure 1. Frame work

만과 동시에 중단되고 그 부산물이 생기는 프레그네롤론(pregnenolone)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정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엔돌핀의 분비가 분만 전 분비되는데 이는 분만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신체의 자연적 반응이다. 하지만 분만과 동시에 그 분비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엔돌핀은 내인성 마약으로 몰핀의 5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진통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일시적인 우울증이 일어나는데 대개 2-3주면 없어지지만 전체 산모의 약 2%는 심한 우울증을 보인다는 것이다(Lee, 2018).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임신이나 출산 이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신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산전우울은 부적 상관관계이며, 자아존중감이 산전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Kwon, 1998).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는 임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4명의 미국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신 중 우울 위험군이 우울하지 않는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2.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ck(2001)은 산전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출산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상태와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과 아기양육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산후우울을 초래하게 된다(Ahn & Oh,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정

산모의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를 도식화 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허락한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2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분만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산모에게 동의 허락을 받은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에 직접 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부가 회수되어 이 중 자료가 부실한 8부를 제외하고 92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내용,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처리하며,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 된 이후 소각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변수는 모애착, 자아존중감, 산후우울이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개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test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모애착, 산후우울,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고, 표본특성별로 모애착,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산후우울, 자아존중감 연구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1) 모애착 측정도구

모애착은 Muller(1994)가 어머니가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모성애착 조사표(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Han(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가보고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도구는 총 26문항이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04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2001)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10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주고,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크론바 알파=.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4이었다.

3) 산후우울감 측정도구

산욕기 산모가 경험하는 침울감, 무력감등의 감정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CES-D는 우울증후군의 역학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MH)에서 1971년 개발하였으며, 도구는 20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우울증후군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첫번째 선별용 검사도구이다. 국내에서는 Jo & Kim(1993)의 연구에서 한국어판 설문지의 번역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는데, Kim(2008)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우울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Kim(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0.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4이었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의 경우 29세 이하가 37.0%, 30 - 34세가 47.8%, 35세 이상이 15.2%로 나타났으며, 분만유형의 경우 자연분만이 62.0%, 제왕절개가 38.0%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교육정도의 경우 고졸이 25.0%, 대졸이 68.5%, 대학원이상이 6.5%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없음이 27.2%, 출산을 계기로 사직이 28.3%, 산후휴가 후 복직예정인 19.6%,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인 25.0%로 나타났으며, 출산횟수의 경우 1회가 65.2%, 2회가 28.3%, 3회 이상이 6.5%로 나타났으며,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의 경우 3kg 이하가 31.5%, 3.1 - 3.5kg이 48.9%, 3.5kg 초과가 19.6%로 나타났으며, 현재 아기의 성별의 경우 남아 47.8%, 여가 52.2%로

나타났으며,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의 경우 일치가 72.7%, 불일치가 27.3%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의 경우 2년 이하가 48.9%, 3-4년이 22.8%, 5년 이상이 28.3%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무교가 58.7%, 기독교가 21.7%, 불교가 16.3%, 천주교가 3.3%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의 경우 101~200만원 이하

가 6.5%, 201~300만원 이하가 28.3%, 301~400만원 이하가 40.2%, 401만원 이상이 25.0%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N=92)

Variable Name	Categories	Frequency (person)	(%)
Age* (year)	< 29	34	37.0%
	30 - 34	44	47.8%
	35 <	14	15.2%
Type of delivery	Vaginal birth	57	62.0%
	Cesarean birth	35	38.0%
Education	≤ High school	23	25.0%
	College	63	68.5%
	≥ University	6	6.5%
Employment status	Housewife	25	27.2%
	Resigned from the birth	26	28.3%
	Will be reinstated after maternity leave	18	19.6%
	Will be reinstated after parental leave	23	25.0%
Delivery experience	1	60	65.2%
	2	26	28.3%
	> 3	6	6.5%
Newborn's BW(g)	< 3kg	29	31.5%
	3.1 - 3.5kg	45	48.9%
	> 3.5kg	18	19.6%
Baby's gender	Male	43	47.8%
	Female	47	52.2%
Marriage period	> 2	45	48.9%
	3-4	21	22.8%
	≥ 5	26	28.3%
Religion	NO	54	58.7%
	Christian	20	21.7%
	Buddhism	15	16.3%
	Catholic	3	3.3%
Monthly income (10,000won)	101~200	6	6.5%
	201~300	26	28.3%
	301~400	37	40.2%
	≥ 401	23	25.0%

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특정변수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항목들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alpha값이 0.6 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9~.96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2>).

3. 연구개념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념의 평균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아애착이 89.78±13.74 점, 산후우울이 48.01±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4.71 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상관관계 분석

모아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299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아애착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r=-0.325)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r=-0.641)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Maternal Attachment	26	.968
Self-esteem	10	.894
Postpartum Blues	20	.91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inimum	Maximum	Mean	SD
Maternal Attachment	92	52.00	104.00	89.78	13.74
Self-esteem	92	23.00	40.00	30.19	4.71
Postpartum Blues	92	21.00	66.00	48.01	11.8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Pearson's correlation)

	Maternal Attachment	Self-esteem	Postpartum Depression
Maternal Attachment	1		
Self-esteem	.299 (**)	1	
Postpartum Blues	-.325 (**)	-.641 (**)	1

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Table 4>).

5. 가설검증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매개회귀분석(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의 효과크기와 매개 유형을 판별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다 투입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5>).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V. 결론

본 연구는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이 두 변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연구개념의 평균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아애착이 89.78±13.74점, 산후우울이 48.01±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4.71 점으로

Table 5.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1

Variables	Mediating effect 1		
	B	베타	t
Maternal Attachment (independent)	-.235	-.309	-2.818**
R ² /F/P	R ² =.096, F=7.943, p=.006**		
Maternal Attachment	-.098	-.130	-1.405
Self-esteem	-1.361	-.602	-6.522***
R ² /F/P	R ² =.426, F=27.436, p=.000***		
ΔR ²	0.33		
partial mediator	all medication		

*** p<0.001, ** p<0.01

Table 6. Sobel test

Sobel test statistic	p	Presence or absence of mediation effect
-2.478	.132*	Presence

*p<.05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아애착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325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우울이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모성 역할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ck, 2001), 산모가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경우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영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영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Bang, 2011). 산후우울 성향을 지닌 산모가 아기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Beck(1998)에 의하면 산후우울이 있는 산모들은 아기를 양육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죄의식, 비합리적사고, 상실감, 분노 등이 가득 찬 상태에서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로봇처럼 비정서적으로 행동하며 아기들의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아기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아기와 많은 갈등을 겪으며 기본적인 부모역할에서 소홀하다고 보고하였다(Lee, et. al., 2011).

Bang(2011)은 산후우울이 자녀의 기질 및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산모가 우울한 경우 영아에게 건강문제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영아의 사회적 반응이 낮았다. 출산 후 6-9 주에 산모가 산후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부부와 산후 우울정서를 경험하지 않은 부부에게 정신건강과 결혼관계의 질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우울증이 없는 부부에 비해 부부갈등과 아이들의 양육에 더욱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등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으며 남편 역시 결혼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에 관한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Oh, 2008).

모아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r=0.299$)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산후 우울 사이에는 ($r=-0.641$)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478$, $p<.001$).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임신됨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모아관계의 형성은 분만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산육기에 초기 모아애착을 위해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모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산후우울은 산후여성의 정신건강과 모아관계에 개입하여 아기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Beck, 2001). 산후우울이 모아애착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Cramer, 1993), 산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아기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모아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모의 산후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산후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신 중 산전관리 기간부터 산모의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References

- Ahn, Ok Sim and Won Ok Oh. 2006.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ostpartum Blues among Mothers during Puerperium. *Journal of the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10): 58-68.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 Psychol*. 44(4): 709-71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Bang, Gyeong Suk. 2011. Infants' Temperament and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Maternal Postpartum Blu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4): 444-458.
- Beck, C. T. 1996.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Postpartum Yun Huija Depression. *Nursing Research*. 45: 297-303.
- Beck, C. T. 1998. The Effect of Postpartum Blues on Child Development: A Meta-Analysis. *Archives of Psychiatric*. 106: 40-50.
- Beck, C. T. 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Blues. *Nurse Research*. 50(5): 275-283.
- Beck, C. T. and P. Indman. 2005. The Many Faces of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4(5): 569-576.
- Beck, C. T. and R. K. Gable.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Postpartum Blues Screening Scale with Two Other Depression Instruments. *Nurse Research*. 50(4): 242-250.
- Blum, L. D. 2003. Postpartum Blu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 1294.
- Cho, Eun Jung. 2009. Subjective Sleep Qualit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during the Late Postpartum Period. *Women's Health Nursing*. 15(2): 108-120.
- Choi, Jung Nyou. 2005. Comparis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Mothers Who Select the

- Breast Feeding in Sanitary Pack and Mothers Who Select Bottle Feeding Centered on Low Birth Weight Infants of NICU.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yle, S. B. 2009.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Mothers: A Review of the Research.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0(6): 484-506.
-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Blues a Mother-infants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 Health Journal*. 14: 283-297.
- Grote, V., T. Vik, R. Von Kries, V. Luque, J. Socha, E. Rduci, et. al. 2010.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and Child Growth: A European Cohort Study. *Bmc Pediatrics*. 10: 14.
- Han, Kyu Eun. 2001.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steem and Maternal Sensitivit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Horowitz, Ja, J. Goodman.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Postpartum Blues Symptoms. *Research and Theory for - 38 - Nursing Practice*. 18: 149-63.
- Jang, Eun Jeong. 2007. Psychosocial and obstetric Factors Associated with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 Jeon, Byeon Gjae.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Seoul: Yeon Sechongron. 11: 107-124.
- Jo, Hui Won. and Ju Yeong Woo. 2013. The Relational Structure Modeling between Variables Related with Postpartum Blue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5(3): 549-573.
- Jo, Hyun Ju, Kyu Yeon Choi, Jeong Jae Lee, Im Soon Lee, Mun Il Park, Jung Yeol Na, Kun Yeong Lee, Jong Min Lee, and Jung Hye Kwon. 2004. A Study of Predicting Postpartum Depression and the Recovery Factor from Prepartum Depression.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15(3): 245-254.
- Jo, Maeng Je and Gye Hui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114: 381-399.
- Jo, Yeong Suk. 1991. The Effect of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Postpartum Mother's Self-Esteem and Depression.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3: 70-91.
- Kim, Jae Won, Jeong Hwa Kim, Dae Suk Eun, and Heon Kim. 2005. Psychosocial and Obstetric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t Postpartum 4 Weeks.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8(8): 901-909.
- Kim, Jae Won, Jeong Hwa Kim, Byeong Jo Kim, Dae Suk Eun, Heon Kim, and Jeong Eun Kim. 2004. Psychosocial and Obstetric Factors associated with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7(10): 1865-1871.
- Kim, Jeong Yeop. 2008. Effect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Women. Ph.D.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 Kim, Ji Yang and Jeong Gyu Kim. 2008. Psycho-social Predicting factors Model of Postpartum Blu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1): 111-140.
- Kim, Rak Hyeong, Su Yeon Kim, and Bo Hyeong Kwon. 2000. Clinical Study on the Postpartum Blues. *The Korean Society of Body • Mind • Spirit Science*. 11(2): 123-130.
- Klainin, P. and D. G. Arthur. 2009. Postpartum Blues in asian Culture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10): 1355-1373.
- Kwon, Jung Hye. 1997. A Test of a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Prepartum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55-66.
- Kwon, Mi Gyeong. 1998. Effects of a Mother Infant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Their Mother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Chae Yeon. 2018.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Adaptation and Quality of Sleep on Postpartum Depression in Puerperal Wome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Geum Jae. 1997. An Analysis of Research on Depression. *Korean Nurses Association*. 19: 605-634.
- Lee, Gyeong Min, and Gang Suk Lee, Jeong Wan Koo, and Jin Hong Kim. 2000. Influence of Postpartum Stress and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33(2): 238-239.
- Lee, Je Yeong, Gyeong Suk Lee, Yu Gyeong Jung, and Ui Jin Shin. 2011.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Play Situation. *Child Welfare*. 32(3): 203-220.

- Lee, Ju Ri. 2013.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ostpartum Blues of Postnatal Women.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 Lee, Myeong Eun, and Yeong Ran Kwon. 2011. Predictors on Depression in Pregnant Women.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3): 252-260.
- Lee, Sang Bok and Hye Suk Shin. 2007. Effects of Kangaroo Care on Anxiety,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Maternal Infant Attachment of Mothers who Delivered Preterm Infants. *Korean Journal of Nursing*. 37(6): 949-956.
- Lee, Seon Mi. 2008.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ostpartum Blue and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 Na, Jin Suk. 201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Video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Na, Yong Jin, Byeong Min Lee, and Jin Seok Jang. 1993. A Clinical Study on the Postpartum Blues.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36(10): 3540.
- Oh, Hyeon Ju. 1999. Mothers' Perception of their Normal of High-risk Newborn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During the Early Postpartum Perio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Oh, Ui Suk. 2008. Effect of Early Parent Education for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2): 274-286.
- Park, Yeong Ju. 2010. Effects of Mother's Stress During Pregnancy, Postpartum Depression and Current Depression on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 Shin, Haw Jin. 2007. The Effects of Kangaroo' Care on the Maternal Attach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As Well As on the Growth of Preterm Infa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Eulji University.
- Shin, Seung Jun. 2002. Factors Affecting Postpartum Blues Disorde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in, Na Ri. 2011. Short-Term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re-and Postnatal Depressive Symptoms of Korean Wom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59-72.
- Song, Ju Eun. 2009. Original Articles : Influencing Factors of Postpartum Blues between 4 to 6 Weeks after Childbirth in the Postpartum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3): 216-223.
- Yang, Young Ok, So Young Choi, En Joung Ryu, and Young Hae Kim. 2003. A Study on the Postpartum Blues in Postpartum Women.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6(2): 159-168.
- Youn, Ji Hyang and In Suk Jung. 2013. Predictors of Postpartum Blues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2): 225-235.
- Yun, Hee Ja. 2005. A Study of The Effects of Early Contact on Maternal Infant Attach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Yun, Seung Eun, Sung Oke Lee, and Hyea Kyung Lee. 2011.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14(2): 45-54.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미경. 1998. 저체중 출생아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혜. 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모델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6: 55-66.
- 김락형, 김수연, 권보형. 2000. 산후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연구. 동의신경 정신과학회지. 11(2): 123-130.
- 김재원, 김정화, 김병조, 은대숙, 김현, 김정은. 2004. 산후우울 증상과 연관된 심리 사회적 산과적 변인에 대한연구. 대한산부인과과학회지. 47(10): 1865-1871.
- 김재원, 김정화, 은대숙, 김현. 2005. 산후4주의 우울증상에 대한 심리사회적 및 산과적 예측변인에 대한연구.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48(4): 901-909.
- 김정엽. 2008.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양, 김정규. 2008. 산후 우울감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1): 111-140.
- 나용진, 이병민, 장진석. 1993. 산후우울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36(10): 3540.
- 나진숙. 2011.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아상호작용 중심의 동영상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2010. 어머니의 임신 중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 및 현재 우울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경숙. 2011. 산모의 산후우울 여부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건강문제. 한국간호과학회. 41(4): 444-458
- 송주운. 2009. 산욕후기 산모의 산후우울이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216-223.
- 신나리. 2011. 산전 후 우울 변화: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단기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59-72
- 신승준. 2002. 산후우울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유경, 최연실. 2013.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능감, 부부갈등 및 산전우울의 영향.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8(1): 155-176.
- 신화진. 2007. 캥거루식 돌보기가 미숙아의 성장 및 모아애착과 산후우울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옥심, 오원옥. 2006. 산욕기 산모의 산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0(1): 58-68.
- 양영옥, 최소영, 류은정, 김영혜. 2003. 산욕기 산모의 산후우울 정도와 영향요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2): 159-168.
- 오의숙. 2008. 출산 후 산모의 우울정서에 대한 조기 부모교육의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274-286.
- 오현주. 1999. 정상 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향, 정인숙. 2013. 산후우울증 관련요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3(2): 225-235.
- 윤희자. 2005. 조기 접촉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이강숙, 구정완, 김진홍. 2000. 산후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예방의학회. 33(2): 238-239.
- 이금재. 1997. 우울과 관련된 학위논문분석. 대한간호협회논문집. 19: 605-634.
- 이명은, 권영란. 2011. 임신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3): 252-260.
- 이상복, 신혜숙. 2007. 캥거루식 접촉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모성역할자신감 및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7(6): 949-956.
- 이선미. 2008. 음악요법이 산모의 산후우울과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2013. 출산 후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의 관계배우자 지지의 중재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 2011. 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와 6-8개월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아동학회지. 32(3): 203-220.
- 이채연. 2018. 산욕기 산모의 모유수유 적응과 수면의 질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승은, 이성옥, 이혜경. 2011. 음악요법이 산모의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45-54.
- 장은정. 2007. 산후 우울증과 연관된 심리 사회학적 및 산과적 요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병재. 1974. Self: Atest of its measur ability. 서울: 연세총론. 11: 107-124.
- 조영숙. 1991. 배우자 지지행위가 산후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3: 70-91.
- 조은정. 2009. 산욕후기 모성의 산후우울정도에 따른 주관적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2): 108-120.
- 조현주, 최규연, 이정재, 이임순, 박문일, 나중열 등. 2004. 산후 우울증에 대한 예측 및 임신 중 우울증의 회복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주산의학회잡지. 15(3): 245-254.
- 조희원, 우주영. 2013. 산후 우울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49-573.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 우울증 환자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114: 381-399.
- 최정녀. 2005. 모유팩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와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간의 모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규은. 2001. 모성자존감 및 모성 민감성과 모애착과의 관

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Feb. 4, 2018 / Revised: Mar. 2, 2018 / Accepted: Mar. 13, 2018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이 두변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모아애착이 89.78 ± 13.74 점, 산후우울이 48.01 ± 11.85 점, 자아존중감이 30.19 ± 4.71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아애착과 산후우울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 = -0.325$ 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아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478$, $p < .001$). 분만 후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들은 모아애착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므로, 조기에 산후우울을 사정하고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모의 산후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기 때문에, 산전관리 기간부터 산모의 자아존중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모아애착, 자아존중감, 산모, 산후우울, 분만

Profiles **Min Hyang Park** : She received her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She finished completing of nursing science doctor's course in Korea University.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nursing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and child's health problems(jalhand98@chsu.ac.kr).